



## 미 증시, 기술적 침체에도 선반영 인식 속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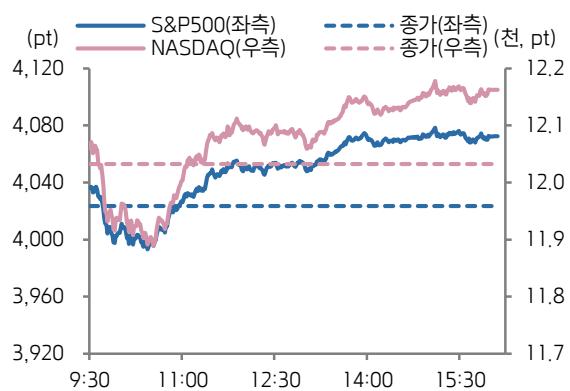
28 일(목) 미국 증시는 2 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술적 침체 확정에도 이에 대한 선반영 인식 속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 빅테크주 호실적 소식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 (다우 +1.03%, S&P500 +1.21%, 나스닥 +1.08%, 러셀 2000 +1.34%).

미국 2 분기 경제성장을 예비치는 QoQ -0.9%(예상치 0.5%, 1 분기 -1.6%)를 기록. 두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 침체 진입. 개인소비 QoQ 1.0%(예상치 1.2%, 1 분기 1.8%)로 둔화되었고, 물가지수는 QoQ 8.7%(예상치 8.0%, 1 분기 8.2%)로 급등.

지표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엘런 재무장관은 경제성장에 뚜렷한 둔화가 나타났지만, 노동시장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상황임을 근거로 경기침체가 아니라고 언급, 또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고 발언. 전일 파월 의장이 향후 경제지표 결과에 따라 금리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더불어 시장에 안도감을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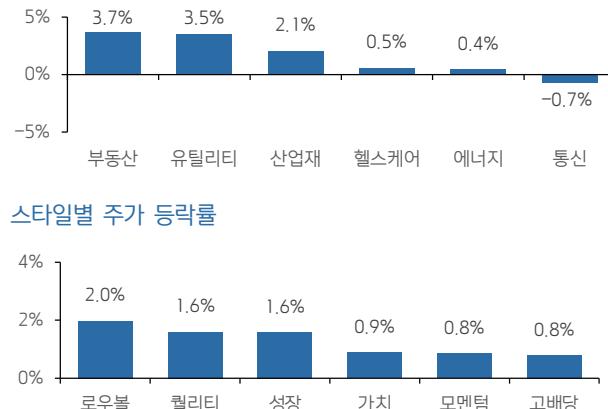
업종별로 커뮤니케이션즈(-0.7%)를 제외한 전업종이 상승, 부동산(+3.7%), 유틸리티(+3.5%), 산업재(+2.1%) 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 에너지(+0.4%), 헬스케어(+0.5%)업종의 상승폭이 가장 작았음. 애플(+0.36%)은 서비스, 기타 상품 부분에서 소폭 부진했음에도 아이폰 판매가 전년동기 대비 3% 증가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인 영향으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예상치 상회, 시간외에서 4%대 상승. 아마존(+1.08%)은 두개 분기 연속 순손실을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북미 소비로 인한 매출 증가와 향후 가이던스를 유지한 영향으로 시간외 12%대 급등. 한편 인텔은 2 분기 매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 연간 EPS 가이던스 하향조정 등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며 시간외에서 7%대 급락.

###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072.43	+1.21%	USD/KRW	1,299.40	-1.06%
NASDAQ	12,162.59	+1.08%	달러 지수	106.17	-0.26%
다우	32,529.63	+1.03%	EUR/USD	1.02	-0.01%
VIX	22.33	-3.92%	USD/CNH	6.75	+0.05%
러셀 2000	1,873.03	+1.34%	USD/JPY	134.28	+0.01%
필라. 반도체	2,944.50	+1.15%	채권시장		
다우 운송	14,275.30	+3.09%	국고채 3년	3.125	+4.5bp
<b>유럽, ETFs</b>			국고채 10년	3.200	+8.5bp
Eurostoxx50	3,652.20	+1.23%	미국 국채 2년	2.862	-13.6bp
MSCI 전세계 지수	630.42	+1.24%	미국 국채 10년	2.676	-10.9bp
MSCI DM 지수	2,675.09	+1.93%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989.89	+0%	WTI	96.42	-0.86%
MSCI 한국 ETF	60.52	+1.14%	금	1769.2	+1.82%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4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3%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95.5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체크 사항

1. 경기침체 진입에도 미국 증시 강세에 따른 국내 위험선호심리 확산 가능성
2. 애플과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따른 시간외 주가 급등이 국내 성장주에 미치는 영향
3. 인텔의 시간외 주가 급락이 국내 관련 IT 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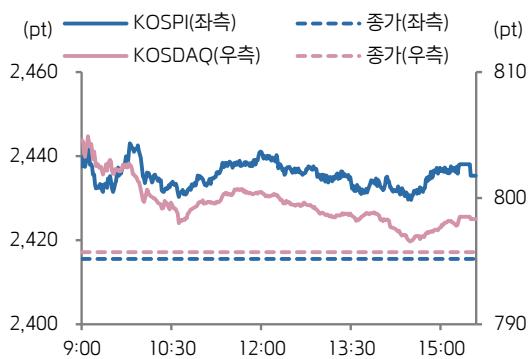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 분기(-1.6%)에 이어 2 분기(-0.9%, 예상 +0.5%)도マイ너스 성장을 기록함에 따라, 기술적 침체에 진입한 상황. GDP 의 70%를 차지하는 개인소비(+1.0%)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으나, 민간 투자(-13.5%)가 대폭 부진하면서 성장을 하락을 견인하는 등 인플레이션에 따른 비용 증가, 수요 둔화가 경기 모멘텀을 약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바이든 대통령, 엘런 재무장관은 2 분기 GDP 발표 이후 탄탄한 고용시장과 견조한 민간 소비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침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으며, 파월 의장도 FOMC 기자회견에서 GDP 속보치는 이후에 수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하는 등 정책 결정자들은 침체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

정책결정자들의 침체 부인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떠나서 대부분 시장 참여자들은 경기 침체 진입을 악재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이면서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이미 증시에서는 6 월초부터 애틀랜타 연은의 GDP NOW 모델 상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이래로 약 2 개월에 걸쳐 기술적 침체 리스크를 주가에 반영해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 향후 주요국 증시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경기 침체 장기화 여부이며, 최근 IMF 가 '미국 22 년(3.7%→2.3%), '23 년(2.3%→1.0%) 성장을 전망을 하향하면서 경고 했듯이,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 시 침체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물론 3 분기 중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은 유효한 만큼 현시점에서 침체 장기화가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니지만, 연내 남은 기간 중 시장은 주요 이벤트마다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매크로 영향권에 놓여있을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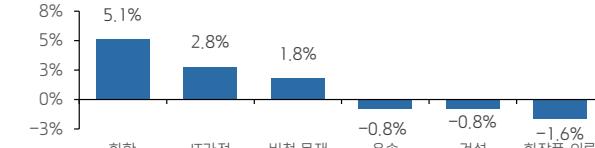
금일 국내 증시도 FOMC 안도감 속 침체의 기정사실화에 따른 미국 증시 반등, 양호하게 진행 중인 2 분기 국내 실적시즌 등에 힘입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장마감 후 애플(+0.4%)이 아이폰 판매 호조 등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시간외 3%대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마존(+1.1%)도 클라우드 포함 주력사업 호조에 따른 어닝 서프라이즈로 시간외 11%대 폭등하고 있다는 점도 국내 반도체, IT 하드웨어 및 성장주들의 투자 심리를 개선시킬 것으로 전망. 다만, 인텔(-1.1%)이 PC 수요 급감으로 부정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 시간외에서 8%대 급락하고 있다는 점이 관련 IT 주들의 상단을 제한할 수 있음. 이에 더해 전일 국내 바이오, 태양광, 화장품 등 업종 간 실적 이슈에 따라 차별화된 주가를 보였던 것처럼, 금일에도 전반적인 증시 환경은 우호적이겠으나 개별 실적 이슈에 따라 상승 탄력이 상이한 주가흐름을 연출할 것으로 판단.

###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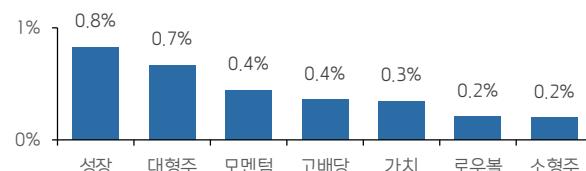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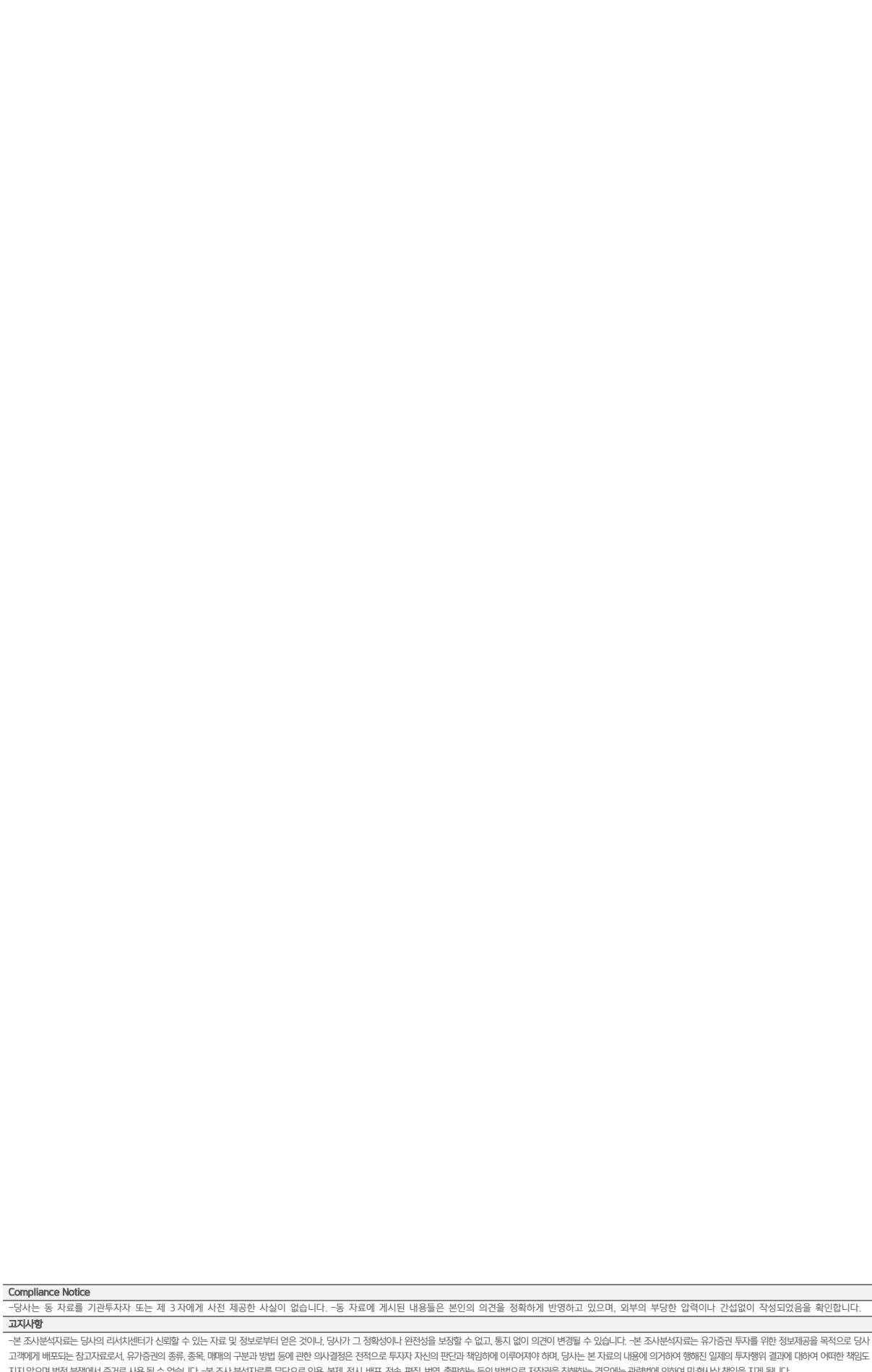
###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원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자리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